

‘천사랑방’ 핵심, 도교육청 요직 속속 입성

선거캠프 주역·인수위 전면 배치
정재균 대변인 4급 공보 총괄
노성원 캠프 실장 출신 5급 합격
교육청 “블라인드 등 절차 준수”

(8) 취임 석 달째로 접어든 천호성호의 각종 인사 논란과 교육행정 파행, 사법 리스크, 공교육 사유화 논란 등 주요 문제점을 20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하며,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졌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천사랑방’ 핵심 인사들이 전북교육청 주요 보직에 속속 입성하고 있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천호성 교육감 체제의 공보를 총괄할 4급 대변인에 선거캠프와 인수위 대변인을 지낸 정재균 씨가 공식 임용됐다.

이어 지난달 27일 발표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최종합격자 명단에서는 교육협력과 소통·협력 분야 5급에 노성원 씨가 낙점됐다.

건설업 출신인 노 씨는 선거캠프 상황실장을 맡았으며, 당선 이후 교육감 취임식 준비위원회에도 참여한 인물로 오는 7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청에 합류한 인물들의 면면도 주목받고 있다.

선거 당시 천 교육감의 칼럼 및 저서 대필 의혹에 연루됐던 오 씨가 분청과

전교사로 배치됐고, 정책 라인은 혁신학교 담당 장학관과 교장을 지낸 이영환 정책국장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 선거 당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던 ‘천사랑방’의 주요 멤버들로 관련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 요직에 합류하자 교육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지침에 근거해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준

수했으며, 공정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통해 인사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장기간 이어진 결원으로 관련 부서들의 업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던 만큼, 행정 공백 해소와 조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측근 내정설과 자책 논란이 일었던 4급 개방형 교육협력과과장 공모는 ‘적격자 없음’으로 미선발 처리됐다.

해당 직위는 향후 재공고를 거치거나 교육행정직 내부 발탁 가능성이 함께 거

론되고 있다.

캠프 핵심 인사들이 교육청 안팎의 주요 연결고리에 전면 배치되면서 교육감의 정책 추진력과 친정 체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 과정의 각종 의혹을 털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임성한 만큼, 이들이 전문성과 행정 역량으로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조직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성민 기자

도내 첫 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새만금 ‘무인농업’ 길 연다

전북도가 전남광주·충남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국내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도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해당 특구가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을 거점으로 완전 무인 자율작업과 다중관제 기술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어려웠던 무인·자율 농기계의 안전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미래 농기계산업의 제도적·산업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역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강점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해 관련 규제를 풀어가는 제도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이후 처음 지정된 사례로,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등 두 개 분야가 선정됐다.

스마트농업 특구에는 전북·전남·광주·충남 3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총사업비 43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별 특화 기술을 시범 운영한다. 전북은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농작업을 수행하는 완전 무인 자율작업과, 관리자 한 명이 여러 대의 농기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1인 다중관제를 맡는다. 전남광주는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한 직류전력을 농업시설 등에 공급·활용하는 기술을, 충남은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체계를 각각 맡는다.

지역별 시범 운영이 끝나면 ‘태양광

직류전력 생산·공급→전기농기계 충전→무인 자율농작업’을 하나로 잇는 통합 실증을 통해 스마트농업 전 과정을 검증할 계획이다.

전북에는 총 137억 3,7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율주행과 정밀제어 등의 기능을 넣을 수 있는 SDM 기술을 적용해, 미래형 농기계의 안전성과 운용 기준을 함께 검증한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5공구에 조성 중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영농 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함으로써 국산 농기계의 현장 적용성과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농작업 효율 향상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특구를 기존 농기계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미래 농기계산업 육성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총사업비 1,066억 원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비롯해 ▲농기계 다품종 유연생산 AI 자율제조 기술개발(122억 2,000만원) ▲시설농업 AI 로봇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297억 3,000만원) ▲특수목적기계 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방형 A-SW 오픈소스 플랫폼 구축(213억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들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기계 연구개발부터 실증·검인증, 사업화와 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미래 농기계 기업과 기술이 모이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모두의 성평등’ 공감대 확산

전북도는 1일 도청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 속 평등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양성평등의 가치를 공유하며, 일상 속 평등문화 확산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전북도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천호성 교육감을 비롯해

도의원, 도·시군 여성단체 대표와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특강과 기념식,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 퍼포먼스,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도는 ‘함께 여는 평등, 빛나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양성평등의 의미와 실천 의지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기념식에 앞서 김수인 김창욱아카데미 원장은 ‘다름에 대한 인정, 상대의 마음을 여는 말하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서로의 다름을 인

정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대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을 소개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도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16개 단체와 개인 20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와 함께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뜻을 모았다.

/장정철 기자

무주반딧불축제 현장 안전 최종 점검

무주군은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개최를 목전에 두고 환인홍 군수와 축제 지원단 및 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 무주예체문화관 등 축제 현장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원활한 축제 운영과 3부(無) 축제로서 완성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전원국수 현장인 남대천 변을 비롯해 주무대와 관람석이 자리한 등나무동장, ‘반디 키즈존’이 조성된 반딧불체육

관, 미디어아트 영상관 등이 설치된 예체문화관, ‘글로벌 웰컴존’으로 꾸며진 예체문화관 광장, 체험 부스가 마련된 지남공원을 둘러봤다.

이 외에도 ‘글로벌 푸드존’이 들어서는 예체문화관 주차장과 반딧불이 신비탐사 출발지 P2 주차장, 상상반디숲, 반딧불이 주제관(P1 주차장), 태권브이랜드의 안전관리 실태와 전기·가스, 교통 등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관람객 집중 시·공간 안전 확

보 △화재·사고 예방조치 상황 △인파 관리 대책 △돌발 상황 대비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환인홍 무주군수는 “점검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빠짐없이 확인·조치해 3부(無) 축제 실현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디의 빛 세계를 만나다”를 주제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고원

JINAN GOWON

2026 JINAN RED GINSENG FESTIVAL

진안홍삼축제

2026. 9.18.~20.일

진안 마이산 북부 일원

축하공연 라인업

9.17 (목) 21시

전야제

정소진진안고원시장 후원

진안홍삼축제의 시작을알리는 사전행사

홍삼빛 낙화놀이

9.18 (금) 18시

개막공연

에일리

데이브레이크

9.19 (토) 18시

레드에너지 파스타

국카스텐

HYNN(박재원)

찬(Chan)

환희

9.20 (일) 17시

제10회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심수봉

이찬원

장민호

김다현

미스김

윤수현

주요 프로그램

함께가서 더 즐거운 공연!

캐치 티니핑 싱어롱쇼

홍삼빛 낙화놀이(전야제)

홍삼가족공연(마술,벌룬,버블)

온가족 참여가족, 다채로운 체험

홍삼비빔국, 홍삼한상, 홍삼명인교실,

홍삼각두기담그기, 홍삼 파워존,

홍삼떡볶이 나눔(with 두끼떡볶이)

마을에서 놀자, 홍삼에너지 충전

머뭇수족 즐거운 홍삼축제!

夢夢한 주제관, 홍삼 키즈존,

홍삼 웰니스타임, 족욕체험 등

전북 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주최 진안군

주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문의처 063)430-2391~3

전북 금융허브 NH농협 합류…특화도시 ‘탄력’

NH농협금융 전북 복합허브 출범
투자증권·농협생명 등 입주
혁신에 자산운용 전주사무소 신설
공공기관 유치 연계 특화모델 구축

전북도는 1일 NH농협금융이 농협은행 전북본부에 전북금융허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

사장, 조지훈 전주시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섭 NH-Amundi 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북 금융허브는 금융서비스와 사회공헌 기능을 아우른 다기능 거점으로 조성됐다. 1층에는 NH농협은행 전북영업부가 들어서 있으며, 2층에는 기업투자금융(IB), 부동산 개발금융(PF) 등을 담당하는 NH투자증권 전주WM(자산관리)센터가 자리한다.

3층에는 NH농협생명 전북본부와 NH농협손해보험 전북본부가 입주했고, 4

층에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금융교육센터가 운영된다. 5층과 8층에는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위치해 디지털여신센터 운영과 영업점 지원 업무를 추진한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에 문을 여는 NH-Amundi 자산운용 전주사무소는 국민연금공단의 자금 위탁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신한금융그룹의 전북 금융허브, KB금융그룹의 KB금융타운, 우리금융그룹의 우리WON금융타운이 잇따라 문을 열고 하나금융그룹의 원-루프

(One-Roof) 센터 신설 계획까지 수립됐다. 이번 NH농협금융의 합류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제2차 공공기관 유치' 등과 맞물려 전북의 금융 생태계의 순작동을 의미한다.

전북도는 이번 금융허브 출범이 단순한 거점 확대를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전북국제금융센터 조성 등 핵심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 '금융도시 전북'의 토대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2차 공공기관 유치 ‘패키지’ 가동

주거·교육·의료 등 8개 분야 통합
기관·업종별 맞춤 지원책 구체화
유치 희망기관 40곳으로 재정비

전북도가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제5차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전기관과 지원방안을 하나로 통합한 선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 소관 실·국장,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실·국과 시군이 제출한 주거·교육·의료·문화·재정·기업금융·산업연계·입지 등 8개 분야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지원 방안에는 입지권 주택 특별공급과 정주시설 조성, 자녀 입학 특례와 교육과정 지원, 의료 접근성 강화, 혁신도시 연계 교통망 확충, 기업금융 인센티

브와 금융타운 조성 등이 담겼다. 도는 이를 개별 시책으로 흩어두지 않고 하나로 묶어, 기관별·업종별로 즉시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할 계획이다.
시군별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도는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을 분야별로 종합해 도 단위 지원책과의 중복이나 공백을 조정하고, 사업별 소요 예산과 매칭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도 도의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26일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에서 전북은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를 성장엔진으로 확정받았다. 도는 국가 성장전략에서 인정받은 이들 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기관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삼아, 산업 육성과 기관 이전을 한데 묶어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사진=전북도>

요청에 따라 유치 희망기관을 40개로 재정비에 제출했다. 농협중앙회와 9대 공제회,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핵심 대상으로 꼽히며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한 제3금융중심지 기반과 농생명·미래첨단산업 기반에 관련 기관을 집적해 기능 연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성장엔진 육성은 대규모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정책금융기관

과 기관투자자가 함께 입주해야 한다는 논리도 유치 전략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도는 정부 로드맵이 발표되는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배치 결과에 따른 후속 유치 활동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본점 소재지가 법률로 정해진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이전 제약요인 해소에도 나선다.

/장정철 기자

민주 지도부, 9일 전북서 최고위·예산협의회

김민석 대표 전대 이후 첫 방문
2027년 국비 확보 방안 논의
전북 현안 중앙당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오전 08시 30분, 전북도청 중회의실1(3층)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17일 선출된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회의로, 그동안 밝혀 온 전북 관련 미래비전 등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최고위원회에는 김민석 당대표를 관계자, 김희수 도의회 의장과 정종북 도의회 원내대표 등이 함께 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2027년 국가예산에 전북 현안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당 지도부에 적극 설명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국회의원 심의·의결을 앞두고 전북도 2027년 국가예산 건의사업 및 현안에 대한 설명, 협의 및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에 사무총장, 권철승 정책위의장, 염태영 참총은지방정부위원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정태호 예결위 간사 등 중앙당 지도부와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원택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청 관계자, 김희수 도의회 의장과 정종북 도의회 원내대표 등이 함께 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2027년 국가예산에 전북 현안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당 지도부에 적극 설명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K-피지컬AI 강국’ 포럼…실현 해법 모색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도약과 K-피지컬AI 강국 실현을 위한 포럼 2024'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6일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과제를 중심으로 열린 1회차에 이어, 그 제2 경쟁력을 실제로 뒷받침할 전력·통신·데이터센터 등 물리적 인프라 전략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자리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로봇과 기계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해야 하는 만큼, 이를 감당할 대응력 역량과 국내의 통신망을 얼마나 빨리, 선제적으로 갖추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발제는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과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전명준 본부장이 각각 맡는다.

하정우 부위원장은 '초거대 AI 시대 국가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AI시대 필수 인프라인 전력·통신·AI데이터센터를 한곳에 묶는 소비러 AI 인프라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전명준 본부장은 'AI 국가 통신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을 주제로 유양국 및 해저광케이블 현황, AI 3강 도약을 위한



김의겸 의원

인프라 확충 방안과 투자 활성화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의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산업계에서는 한국전력공사 김재근 부사장과 현대자동차그룹 문성현 대외협력담당 실장이, 학계에서는 서울대 이경한 교수(전기공학부)가,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임승준 변호사가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부 남명우 산업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정규 네트워크정책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재식 전력망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부처별 정책 방향을 밝힌다.

이번 포럼에는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철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장(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현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이 서면 축사를 보내 힘을 보탬 예정이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소·염소 55만1천마리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이달 실시…소규모 농가인력 투입

전북도는 2017년 이후 이어온 구제역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재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 3월 상반기 접종 이후 백신의 면역 유지기간을 고려해 6개월 주기로 추진하는 것으로, 소 8,781농가 44만 9,000마리와 염소 1,632농가 10만 2,000마리 등 총 1만 413농가 55만 1,000마리가 대상이다.

도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73개 접종반, 228명의 전문인력을 운영한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수의사 등 방역 인력과 염소 포획 전문인력을 투입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 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한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비용 지원

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소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백신 구입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100마리 이상 농가는 종전대로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접종 후에는 이력관리와 항체검사를 통해 접종 여부와 면역 형성 여부를 확인한다. 소 사육농가는 관할 시·군 또는 지역축협에 접종 내역을 제출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염소 사육농가는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접종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접종 4주 후인 10월 한 달간 전년도 검사 이력이 없거나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 자가접종 농가 등을 우선 선정해 항체양성률 기준에 미달한 농가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과 4주 간격의 재검사를 실시한다.

/장정철 기자

이춘석 ‘새만금 메가샌드박스 조성법’ 대표발의

국정과제 후속…기업 전주기 지원

이춘석 의원은 1일 새만금 전역을 규제 없는 메가샌드박스로 조성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새만금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은 기업 지원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설정'이 국정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전폭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했고, 이춘석 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이



이춘석 의원

번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기업이나 특정 기술 단위로 적용됐다면, 메가샌드박스는 특정 광역지역이나 산업클러스터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대규모 규제혁신 모델이다. 2025년 4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역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으로 '메가샌드박스'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 중심의 새만금사업법을 산업혁신 지원법 체계로 전환하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 확인부터 실증·임시허가·사업화까지 신속히 지원하는 원스톱 규제특례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유치와 성장

01

02

03

04

05

여름철 건강관리

수분 섭취 늘리기

자외선 차단하기

충분한 휴식 취하기

적절한 운동하기

적절한 식사하기

농진청, 내년도 예산안 1조2134억 규모 편성

현장체감성과창출 방점 지역특화작목치유농업 균형성장 중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6.5%(740억 원) 증가한 1조213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연구개발(R&D) 분야 순수 R&D(건축사업 제외) 예산은 6361억원으로 올해 5661억원 대비 12.4%(701억원) 대폭 증가했다.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2년 차 핵심정책인 농업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정부 2027년 재정 투자 방향인 인공지능(AI)·미래 성장동력·지역 균형성장·국민 안전과 연계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농진청은 농업인 안전·발농업 기계화 등 현장문제 해결,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농업의 미래 신산업 육성, 지역특화작목·치유농업 등 지역 균형성장, 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 등에 2027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사진=농진청>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 구축,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발농업 기계화 등 수요자·현장 중심의 현안 해결에 1946억원을 투자한다.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첨단기술 기반 정밀농업 확산,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산업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 농업의 미래 신산업 육성에 2366억원을 투자한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등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위한 성장환경 조성에 2187억원을 투자한다.

기초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논 농업 구조전환 및 식량작물 국산 품종 개발·보급 등 튼튼한 식량안보 구현을 위해 1162억원을 투자한다.

재해에 강하고 생산 안정성이 높은 품종 및 이삭기상에 대응한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축산물 안정생산과 수급안정 지원에 1723억원을 투자한다.

농식품·농산업 기술수출 지원 및 기술강국·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국익 연계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등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624억원(20.8% 증가)을 투자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강열 등 접경 지역의 재배 한계 환경에 대응하는 중북부 한계지역 적응형 농업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30억원)과 정상의외 후속 농업기술 협력을 위한 브라질·멕시코·몽골과의 농산업 글로벌 확산협력(3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국산 농기자재의 수출 납품 소요 시간(리드타임)을 단축하는 수출패스트트랙 K-농업기술 개발(30억원)과 전통 발효유산 과학화를 통한 K-명주 세계화 기술개발(30억원)을 새롭게 추진해 농식품·농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개도국 식량난 완화를 위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협력(178억원)과 부처 간 협업 대형 패키지 사업(46억원)을 통해 국익에 기여하는 실용적 공적 개발 원조(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2027년도 농진청 예산안 규모 확대는 농업이 식량안보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농업과학기술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며 “농업 대전환 답은 인공지능(AI)에 있고, 그 성과는 현장에서 증명돼야 한다. 농업인 안전과 발농업 기계화 등 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피지컬AI·농림위성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융합해 농업인이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경진원>

경진원,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지역사회 관심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청년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추진하는 공익 캠페인으로 지역사회 관심 확산을 위해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캠페인 동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지목을 받아 진행하게 됐다.

경진원은 1일 기관 월례회의에서 100여명 임직원과 함께 청소년 불법도박의 위험성에 공감하며 다 함께 한목소리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선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윤여봉 원장은 “우리 청소년의 일상에 파고든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예방의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며 “임직원과 함께 본 캠페인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다음 주자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김기수 원장을 지목했다.

/김영태 기자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제도악용방지 위해 외국인 실거주 확인 관련 서류 심사 엄격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

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련 서류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

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또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납에도 적용해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 확인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을 살펴 빈틈을 찾아 메우는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 바이오기업, 공동연구·투자·사업화 모색

협력사업 발굴 현장형 커뮤니티로 발전

‘9월 전북 바이오 얼라이언스 혁신싹’이 1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행사장에서 도내외 바이오기업과 산학연관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는 바이오기업들이 기술·시장·투자·사업화 수요를 직접 공유하고 기업 간 공동연구와 사업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기존 기관 설명이나 지원사업 안내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참여기업

간 대화와 교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키노트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바이오PS가 ‘5G3R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의 주요 육성 방향과 핵심과제를 소개했다.

이어 ASK벤처스 홍진만 대표이사는 ‘시간제 CFO’를 주제로 초기·성장기 바이오기업의 재무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홍 대표는 상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기업이 외부 재무전문가를 필요한 기간 또는

업무 단위로 활용하는 ‘Fractional CFO’ 모델과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참여기업들은 1분 소개를 통해 각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제품, 사업 추진 현황,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를 공유했다.

이후 자유 네트워킹에서는 공동연구,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사업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별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 대표와 사업책임자,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사업을 이해하고 협력 파트너를 탐색하면서 기업 중심의

실질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싹들은 짧은 주제 발표와 기업 소개, 충분한 자유 네트워킹을 결합한 정례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전북 바이오 얼라이언스를 기관 중심 협의체에서 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현장형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참여기업 의견을 반영해 차기 혁신싹들의 주제와 초청기업을 선정하고, 공동사업과 기업 주도형 협력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21일까지 접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6년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기업&지역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유공 포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과 유공 포상은 인공지능(이하 AI) 도입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지역 중소기업 AI 전환과 AI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째로 진행된다.

공모전 신청 대상은 AI 기술을 도입·활용해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매출 증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경영 혁신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AI 도입 우수사례 등을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접수된 기업의 AI 도입·활용 사례의 혁신성, 확장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1개사, 최우수상 2개사, 우수상 2개사에는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장려상 5개사는 중진공 이사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수상한 기업은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대하고, AI 도입 성과는 AI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집 수록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유공 포상 대상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등 중기부 AI 정책사업에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 AI 도입·활용을 촉진하거나 지역 AI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이다.

포상 규모는 중기부 장관 표창 총 8점으로 개인 부문은 AI 도입·활용의 혁신성, 성과와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기관·단체 부문은 지역 AI 사업의 추진 성과와 협업 체계, AI 생태계 조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포상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기업과 유공자는 AI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활용 모델을 연결하고, 연발 시상식과 우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주요 성과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사진=중기부>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공모전과 유공 포상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AI 활용 모델을 널리 알리고 지역 AI 전환을 위해 노력해 온 개인과 기관·단체의 성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 ‘국민 아이디어로 더 알뜰하게’

예산 절감 위한 ‘대국민 공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예산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까지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 다.

예산 운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누리집(www.nps.or.kr)에서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2005년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산 절감 사례를 공모해왔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2020년부터는 참여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최근 5년간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343건 중 53건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국민연금은 접수한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11월 중 누리집에 우수 아이디어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은누리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국민연금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힘이 된다”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참신한 예산 절감 방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박춘원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1일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통시장을 찾아 2026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북은행은 기부문화 확산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구매 물품을 기부했으며 추석을 맞이해

영세상인과 취약계층을 돕는 일석이조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

박춘원 은행장은 “장보기행사를 통해 상인 분들과 취약계층 이웃들 모두가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진정한 ESG경영을 통해 가장 따뜻한 금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관광 주민주도 기반 다져야” 2(題)

심부건 부의장 ‘민관 협력형 협의회’ 제시

완주군의회 심부건 부의장은 1일 열린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는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부의장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인용 “2025년 완주 방문객은 2401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100만 명 증가했고, SNS에서 완주 관광 관련 검색량도 42.3% 늘었다”며 완주 관광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주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이 현재 9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가 성장하고, ‘2025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4년 연속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축적해 온 민관 협력의 경험과 성과가 DMO



심부건 부의장

사업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의회와 집행부, 완주문화관광재단, DMO 참여기관 및 관광사업자 등이 향후 협력체계의 방향을 논의한 결과, 독립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기보다 행정과 재단이 민간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협의회’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심 부의장은 관련 조례 제정, 관광자원 현황 파악 및 DB 구축, 용역·연구 등을 통한 협의회 운영방향 구체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심 부의장은 “민간의 다양한 제안이 실제 관광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유이수 의원 “읍면 주민주도 축제 발굴해야”

1일 열린 제30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 13개 읍·면이 가진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주민주도형 지역축제를 발굴하고,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지역축제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공연과 부스 중심의 획일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축제를 직접 제안하고 준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이 축제의 주체로 참여하는 스페인 테네리페 카니발과 경남 남해군 서면의 ‘노을, 서면에서 봄’ 축제들 사례로 들었다. 특히 남해군 서면의 경우 주민들이 지역의 노을과 유채꽃, 바다



유이수 의원

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지역 특색과 공동체 참여를 함께 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주민들이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는 과정은 단순히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 지역에 대한 애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완주군도 13개 읍·면의 서로 다른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축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13개 읍·면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생활 속 자원을 활용한 축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축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귀농귀촌 정책 ‘전국 우수사례’

2026 에이팜소 우수지자체상 정착비 지원·주거개선 등 호평

순창군이 국내 대표 귀농귀촌 박람회인 ‘2026 A FARM SHOW’에서 ‘귀농귀촌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하며 귀농·귀촌 유치와 도시민 정착지원 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도에서도 순창군을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이 함께해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과 지역별 정착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도시민 유치 활동을 펼쳤다.

순창군은 행사 기간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정착 여건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개인별 관심 분야와 준비 단계에 맞춘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사정착비 지원 △소득 기반 조성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멘토링 △생활정보 제공 등 귀농·귀촌 초기부터 안정적인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원체계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농지·주택 정보와 지역 생활환경 등 실제 이주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 귀농 사례를 공유하는 등 예비 귀농·귀촌인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상담을 강화했다.

행사 기간 동안 순창군 홍보관에는 다수의 방문객이 상담과 정보를 요청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향후 귀농·귀촌 및 정착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수상은 순창군이 추진해 온 귀농·귀촌 정책과 도시민 유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추석맞이 농특산물 우체국물 할인 진행

시 브랜드관 최대 30% 할인 제수용품·선물세트 등 참여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달 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우체국 소평물(mall.epost.go.kr)을 통해 농특산물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할인쿠폰 발행, 배송비 지원, 추가 기획전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상시 10%할인 쿠폰(예산 소

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 외 업체별 추가 할인이 더해져, 최대 30%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우체국 소평물 내 지역 브랜드 관에 마련된 ‘남원시 브랜드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자연산 호두, 잣과 같은 임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전통향과 및 가정 뿐 아니라 김부각, 추어탕 같은 남원의 전통 특산물 생산업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예정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많은 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음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제44회 고산면민의 날’ 1,200명 화합

지역발전 기여 주민 15명 표창 제1회 요리경연대회 개최

제44회 고산면민의 날 행사가 1일 고산 생활체육공원에서 1,200여 명의 주민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성종기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고산면민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민속체육경기, 3부 화합만마당으로 진행해 면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행복한 고산면 건설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 사회 발전에 기

여한 정영호(58) 씨 등 4명이 완주군 수상을 받았으며, 완주군의회 의장상 3명(구유숙 씨 등 3명), 국회의원상 3명(이창희 씨 외 2명), 고산면장상 5명(백경도 씨 등 5명) 등 총 15명이 수상 의 기쁨을 누렸다.

이어 제1회 고산마실 요리경연대회와 함께 민속경기(고리갈기, 투호, 제기차기)가 펼쳐져 주민 간 친목을 다졌다. 화합만마당 잔치에서는 주민들이 노래자랑을 통해 숨은 끼와 기량을 펼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년 만에 개최된 제44회 고산면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고산면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농협, 배추모종 7200판 ‘통 큰 나눔’

전 조합원에 1인 1판 무상공급 농가주부모임 30여명 일손 보태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벼 육묘장 유휴기간을 활용해 임직원이 가꾼 배추모종을 전제 조합원 7,200여명에 게 1인당 1판(105구)씩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남원농협의 배추모종 무상공급 사업은 조합원의 영농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2018년도부터 9년째 실시하고 있는 실익사업으로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남원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 30여명은 배추 육묘판 발아 상태를 점검하고, 완성된 배추 육묘를 포장해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작업까지 함께하는 합동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쳐 그 의미를 더했다.



<사진=남원농협>

이번에 공급한 ‘황금찬’ 배추는 김장용으로 선호되는 품종으로 조합원들은 공급받은 모종을 직접 재배해 옮겨올 김장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기열 남원농협 조합장은 “구슬땀을 흘려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한 이번 육묘 지원이 조합원들의 영농 부담을 덜고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기자

순창장류축제 ‘글로벌화’ 지역 대학 협력

원광대·우석대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유학생 체험 참여 확대

순창군은 지난달 31일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지역참여 확대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순창군과 양 대학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이자 예비 글로벌 축제인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 장류문화와 K-푸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순창군과 양 대학은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순창장류축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외국인 유학생의 장류축제 참여 확대 △유학생이 참여하는 공연·전시·체험 및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협력 △순창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체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원광대학교·우석대학교와의 협약을 끝으로 순창군은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도내 6개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참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아울러, 군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올해 장류축



지난달 31일 순창군·우석대 외국인 유학생 지역참여 업무협약 <사진=우석대>

제 기간 유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과 글로벌 콘텐츠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별·일자별 참여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의회, 통합돌봄 확장 해법 찾는다

‘남원형 통합돌봄’ 정책토론회 농촌 맞춤형 서비스 방안 논의

남원시의회 남원미래정책연구회는 지난달 28일 남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통합돌봄 확장으로 남원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주제로 지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남원미래정책연구회는 남원시의회 의원 7명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9명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형 정책연구단체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봉리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확장으로 남원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통합돌봄 사업의 목적과 정의, 주요 사업 유형 등을 설명하고, 남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 참여형 돌봄체계 구축과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 및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남원형 통합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유사 돌봄사업 간 중복 문제 및 종사자 인건비 격차 해소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확보와 인력 수급 대책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구축 등 현실적인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통합돌봄이 주민 스스로가 지역 사회 돌봄의 주체로 참여하는 ‘주민 중심의 돌봄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남원미래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인 이상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전문가, 정책 연구단체가 함께 남원의 미래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기자

완주군, 수소산업 미래인재 양성 ‘맞손’

가스안전공사·우석대 등 5개 기관 수소에너지고 교육·현장학습 지원

완주군이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우석대학교, 수소에너지고등학교, 한국수소연합과 완주군 수소산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산업 미래인재 양성에 나섰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김홍철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 이흥기 우석대학교 부총장, 송현진 수소에너지고등학교 교장, 정석진 한국수소연합 사무총장 등 관계자 18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교 단계부터 수소산업에 필요한 현장 기능인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교육과 취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수소에너지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안전 분야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이론교육·현장 학습 운영을 맡으며, 우석대학교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예산을 향후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에너지고등학교는 수소와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돼 5년간 국비 45억 원을 지원받아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교육과 전문기관의 수소안전·기술교육, 대학의 교육역량, 기업 네트워크를 연계해 학생들이 실무역량을 갖추고 지역 소기업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인재 선순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소액 사망자 지방세 환급절차 대폭 간소화

남원시는 ‘사망자의 지방세 소액 환급금’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를 환급받으려면 민법이 정한 상속 지분 또는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데,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 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소액 환급금의 경우, 미환급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총 1,521건 18,120천원으로 이 중 99%가 수차례 환급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신청하지 않고 있는 10만원 이하 소액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남원시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사망자의 환급금이 10만원 이하면 서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주된상속인에게 상속인 동의 없이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 착안해 우선 대상자 47명 주된상속인에게 전자문자 및 우편안내문을 발송해 안내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정보를 확인해 환급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사망자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안내문을 받은 주된상속인은 꼭 기한 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알레르기질환 특강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완주군이 지난달 31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학부모와 지역 주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주민 특강’을 운영했다.

이번 특강은 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 3주년을 맞아 완주군 학부모와 지역 주민에게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예방·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김소리 전북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장(전북대학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이 △아토피피부염·알레르기비염 등 주요 알레르기질환의 원인과 증상 △질환별 올바른 치료와 관리 방법 △악화 요인과 생활환경 관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관리 수칙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 참여자들에게 한지공예 만들기 체험활동을 운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참여자 간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교육에 집중할 수도록 했다.

군은 현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1개소를 운영하며 유병조사, 대상별 예방교육, 알레르기질환 학생 발굴 및 관리, 보습제 등 질환자 지원을 통해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를 캠페인 나서

순창군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드서클(Red Circle)’은 건강한 혈관을 상징하며, ‘자기혈관 숫자알기’는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은 캠페인 기간 재래시장과 터미널 등 주민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수칙과 건강정보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을 찾아가는 ‘직장인 레드서를 부스’를 비롯해 20~50대 주민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직장인을 위한 ‘심뇌튼튼 필라테스 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전광판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수칙과 자기혈관 숫자알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홍보대사 개그맨 김범준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남원시 홍보대사 김범준(SBS특채·MBN공채 개그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고향 남원에 대한 꾸준한 애정을 전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500만원을 기부하면서 누적 기부액은 1,000만원에 이른다.

김범준은 개그맨을 비롯해 프리랜서 MC,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전국 각지에 남원의 매력과 다양한 모습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범준은 “고향 남원에 다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남원시 홍보대사로서 남원의 좋은 모습을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이 남원의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알리는 데 힘쓰겠다. 고향 발전을 위한 관심과 응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여순항쟁 구례유족회 '아버지의 해방일지' 관람

여순항쟁 구례유족회 이규중 회장과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남원 청아원을 찾아 남원시립국악단의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관람하고, 작품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화해의 메시지를 되새겼다.

정지아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찾은 다양한 조문객의 이야기를 통해 딸이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삶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남원시립국악단은 원작의 깊이 있는 서사에 판소리와 국악을 더해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이들의 삶을 해학과 감동이 어우러진 무대로 풀어냈다.

이번 관람은 여순항쟁의 아픔과 기억을 간직해 온 유족들이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함께 공감했다는 점에서 뜻깊었다.

참석자들은 공연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상처를 넘어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 홈푸드마트 임미숙 대표 자녀, 2천만원 기탁

지역사회 나눔 실천

군산시는 1일 홈푸드마트 대표의 자녀 정승현, 정승경 씨가 지역 발전과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재준 군산시장, 홈푸드마트 임미숙 대표님과 자녀분께를 비롯한 홈푸드마트 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기부자를 대신해 모친인 임미숙 홈푸드마트 대표가 참석하여 기부금을 전달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응원했다.

임미숙 대표는 “자녀가 뜻깊은 기부에 동참해 주어 매우 대견하고 기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향토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재준 군산시장은 “고향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소중한 기부금을 전달해 주신 홈푸드마트 임미숙 대표님과 자녀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시신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군산시는 1일 홈푸드마트 대표의 자녀 정승현, 정승경 씨가 고향사랑기부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군산시>

담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두 며느리, 시아버지 추모 마음 장학금으로 기탁

백지원 정읍시의회사무국장 오용려 르노코리아 정읍 소장 가족 마음 담아 학생들 응원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두 며느리가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장학금으로 이어갔다.

백지원 정읍시의회사무국장(사진)과 오용려 르노코리아 정읍 대리점 소장은 최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두 사람은 장례를 마친 뒤 고인을 기리고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가족의 마음을 모았다. 장학금은 별도의 기탁식 없이 재단 계좌를 통해 전달됐다.

백지원 국장과 오용려 소장은 “시아버지를 떠나보내며 가족의 마음을 모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진안군 드림스타트 가족 영화관람 행사 진행

진안군은 지난달 27일 진안마이골작은영화관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가족 등 35명을 대상으로 ‘즐거운 문화생활 영화관람 2차’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유대감을 깊게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정서·행동 맞춤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참석한 아동과 가족들은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인 ‘사랑의 하추핑: 고래보석의 전설’을 함께

관람하며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겁고 여유로운 주말을 보냈다.

특히 영화 관람과 더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며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힐링이 되었다”며, “아이에게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진안군 드림스타트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 계절근로자 61명, 문화탐방으로 재충전

완주군이 농촌 현장에서 일에 집중해 온 계절근로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충전의 시간을 갖고 한국과 완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완주외국인지원센터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공공형 계절근로자 61명을 대상으로 ‘완주외국인지원센터 계절근로자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문화탐방은 농번기 동안 농촌 현장에서 근로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들에게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문화체험

의 시간을 제공하고, 한국과 완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탐방에는 이서농협 계절근로자 24명과 고산농협 계절근로자 37명 등 총 61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구이안덕마을을 방문해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점심식사와 마을을 둘러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을 찾아 우리나라 전통주와 관련된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김명곤 기자



강성만 광일폐차장 대표 부안군에 기부금 기탁

부안군은 광일폐차장 강성만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강성만 대표는 지난해에도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 다시 100만원을 기부하며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했다.

특히 강성만 대표는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부안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 역시 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됐다.

강성만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안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강성만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에 잘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양대석 희망생봉사단장 익산시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익산시 모현동은 양대석 희망생봉사단장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현동 저소득가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 단장은 희망생봉사단을 비롯해 모현동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데 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과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양대석 단장은 “어릴 적 어렵게 생활했던 기억이 있어 늘 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모기감염질환 예방 위한 7가지 행동수칙



1
집 주변
고여 있는
물 없애기



2
질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3
야외활동 시
밝은 색 옷
착용



4
모기퇴치제
올바르게
사용하기



5
과도한
음주
지제 하기



6
야외활동 후,
빈드시 샤워
하고, 땀제기



7
잠들기 전
집안
짐김 하기

〈一事一言〉



벼랑 끝 내몰린 전주대, 불통의 독선을 멈추고 대화로 응답하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대학 존립 위기 속 단식 농성
독선적 불통이 자초한 파국이다

지방대학이 벼랑 끝에 몰린 사면초가의 생존 위기 속에서, 지역의 대표적 사학인 전주대학교가 극한의 내홍으로 치닫고 있다. 대학의 정상화와 민주적 운영을 촉구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사 항전을 외치고 단식 농성에 돌입한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학내 갈등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깊은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대학 구성원이 대화와 소통의 문을 닫아걸은 채 목숨을 건 단식이라는 극단적 수단에 기댔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주체가 누구인가. 이는 그동안 구성원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해 온 법인 이사회와 대학 당국이 자초한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행정 폭거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가 덮치면서 전국의 모든 대학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학의 경쟁력은 구성원 간의 단합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나와야 마땅하다.

그러나 전주대 본부와 재단은 구조조정, 학과 개편, 주요 재정 및 인사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 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을 철저히 소외시킨 채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행해 왔다. 구성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학교 운영을 향한 훼방'으로 치부하고,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고집해 온 구태가 오늘날 비대위원장의

의 단식이라는 파국적인 비극을 낳은 직접적인 원인이다.

대학은 특정 개인이나 재단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져야 할 상아탑이 민주적 가치를 상실하고 불통의 성채로 전락할 때, 그 조직은 이미 교육 기관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교원과 직원들이 땀 흘려 가르치고 연구하며, 학생들이 꿈을 키워야 할 캠퍼스에서 구성원들의 대표가 굶주림을 참아가며 호소해야 하는 현주소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학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당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 당국이 걸으려는 위기를 외치면서 정작 내부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구성원들의 인권을 도외시한다면, 그 어떤 구조조정도 도민과 학생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결국 공멸의 길로 걸어들어갈 뿐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학이 폐쇄적인 운영과 재단의 사유화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몰락해 갔던 역사를 우리는 또렷히 기억하고 있다. 전주대 이사회 역시 이러한 사학의 전형적인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성(知性)의 요람이어야 할 대학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수의 과정이 사라지고 힘의 논리만 남았다는 것은, 재단과 대학 경영진이 자질 부족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다. 벼랑 끝에 선 비대위원장의 단식은 개인의 투쟁이 아닌, 무너져 가는 전주대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려는 학내 구성원 전체의 마지막 비명이다.

이제 법인 이사회와 대학 당국은 비겁한 침묵과 오만한 태도를 거두고 결단해야 한다. 비대위원장의 단식이 더 큰 건강 악화나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로 번지기 전에, 대학 최고 책임자들이 직접 농성장을 찾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대화의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 독선적인 학사 운영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대학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조건 없는 소통과 상생의 합의만이 현재의 파국을 수습하고 전주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

전주대의 위기는 비단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주대는 전북 지역 인재 양성의 한 축이자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의 공생이 걸린 공공적 자산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지역 사회 역시 사학의 내홍이라며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것이 아니라, 대학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

오만한 독선을 버리고 상생의 대화로 응답할 때, 비로소 전주대는 벼랑 끝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당국은 참았던 도민들의 분노가 더 큰 심판으로 다가오기 전에 즉각 행정 폭거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오늘의시

저녁 앞사귀 / 한 강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찾아온 것은 아침이었다
한 백 년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내 몸이
커다란 향아리같이 깊어졌는데
혀와 입술을 기억해 내고
나는 후회했다
알 것 같다
일어서면 다시 백 년쯤

별 속을 걸어야 한다
가기 저녁 앞사귀
다른 빛으로 몸 뒤집는다 캄캄히
잠긴다

시인 약력 : 1970년 광주광역시 출생.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시인으로, 1994년 소설가로 등단했다. '한국소설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제29회 '이상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고 2016년 5월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다. '몽고반질', '소년이 온다' 등의 작품을 다수 남겼고 그 영향으로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됐다. 노벨상으로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어 두 번째다.

사 설

사람 바꾼李정부 2기, 이제 성과로 증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법무·국방·중소벤처기업·성평등가족부 수장을 한꺼번에 바꿨다.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경제와 부동산 정책의 양대 축인 재경부와 국토부 수장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다만 두 자리 모두 현직 차관을 승진 발탁했다.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보다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집행 속도와 성과를 높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문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람의 교체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점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부동산 불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큰 폭의 개각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새 경제팀은 경제지표가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와 일자리,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의 현실에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

범여권을 아우른 인사도 눈에 띈다. 민주당뿐

아니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인사를 국정에 참여시킨 것은 정치적 외연 확대와 통합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인사의 기준은 끝까지 능력과 성과여야 한다. 정치적 안배가 전 문성을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 통합 인사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전북의 시각에서는 청와대에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을 신설한 점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았다면 그 혜택이 또다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 새만금과 피지컬AI, 재생에너지, 첨단산업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도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당당하게 반영돼야 한다.

개각은 출발이지 성과가 아니다. 2기 내각의 성공 여부를 서울 집값이나 몇몇 거시경제 지표만으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지방의 기업이 살아나고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경제 쇄신이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으로 일어설 때 이번 개각도 비로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

판결보다 먼저 갇힌 사람들, 구치소에서 배운 무죄추정



처서가 지났는데도 더위는 물러날 줄 모른다.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일상이 새삼 감사하다.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젊은 시절, 나는 구치소에 갇힌 적이 있다.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 몸을 제대로 뉘기 어려웠고, 오래 앉아 있는 일조차 고통스러웠다. 여름의 열기가 방 안에 머물렀다.

훗날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무죄라는 두 글자가 갇혀 있던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않았다. 더 오래 남은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였다. '구치소에 갔던 사람'이라는 말 앞에서 사람들은 판결보다 먼저 결론을 내린다. 무죄라고 해도 "그래도 무언가 있었겠지"라고 여긴다.

무죄추정은 법정 안에만 필요한 원칙이 아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약속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구속은 혐의와 유죄를 뒤섞어

놓는다. 수감과 호송차, 구치소라는 말은 판결문보다 먼저 한 사람에게 죄인의 얼굴을 씌운다.

구치소는 단지 재판을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다. 자유를 잃고, 가족과 떨어지고, 일상과 생업에서 밀려나는 공간이다. 법률상 구속은 형벌과 구별되지만, 갇힌 사람이 겪는 고통은 이미 삶 전체를 흔든다.

최근 이만희 신천지에수교회 총회장의 구속을 두고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젊고 건강했던 나조차 견디기 힘들었던 공간을 초고령의 사람이 지나야 한다면, 그 하루의 무게는 얼마나 더 크겠는가.

이 원칙은 특정 종교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든, 아무도 알 아주지 않는 시민이든 마찬가지다. 구치소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사람의 존엄까지 함께 닫혀서는 안 된다.

내게 좁은 방의 답답함은 오래전 기억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도 묻는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가.

김진우 대한전원교회 목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9월 2일 수요일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전북가-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미끄러운 빗길, 안전거리 확보!

제동거리 증가!

수막현상 발생 위험!

타이어 공기압&마모 점검필수!

침수도로 진입 절대금지

침수도로 진입 금지

무리한강행시 사고·차량전손 위험

침수도로 통제위반 시 법적 책임

지시불이행 처벌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이 재밌지!”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을 느끼고 세계인과 함께하는 빛의 축제다.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느끼는 그야말로 오감 축제. 올해는 30회 축제다운 연료와 감성으로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축제로 준비했다.

무주라서 특별한 자연, 무주반딧불축제라서 다채로운 공간에서 마주하는 다시없는 경험과 감동, 그 속으로 들어가 본다.

(편집자 주)

30회 맞아 더욱 풍성해진 축제 자연·문화·공연 어우러진 오감 향연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 웃어라! 아이야

올해 처음 펼쳐지는 ‘반디와 친구들’은 9월 4일과 12일, 반딧불이를 상징하는 ‘또리와 아로’, 또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퍼레이드’로, 글로벌 태권존(태권브이랜드)을 출발해 축제장 주요 구간을 순회한 뒤 글로벌 푸드존(무주예체문화관 주차장)까지 행진하며 축제에 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행진 후에는 대형 퍼레이드카가 축제장 내에 포토존으로 자리한다. 매일매일 무주예체문화관 광장에서 펼쳐지는 ‘반디 피에로 버스킹’과 ‘반디키즈 판타지(버블쇼, 풍선)’도 어린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반딧불체육관 ‘반디키즈존’에서는 중대형 에어바운스와 범퍼카, 동물 자동차, 볼풀장, 볼록·편백나무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어린이 동반 가족들을 위한 쉽터도 기다린다.

Tip • 별별 이야기_반디별 소풍

천체 과학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별자리를 찾는 행사로 ‘별별 이야기’를 들을 기회. 미니 망원경 만들기와 함께 별빛 쏟아지는 자연의 품에 안겨 물소리, 바람 소리 벗 삼아 즐기는 명상의 시간도 기다린다.

▶ 비켜라! 더위야

아직 가시지 않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벼락 페스티벌’도 9월 4일 개최된다. 축제장과 무주군청 사이 남대천교에서 펼쳐지는 한바탕 물총 싸움, 흥겨운 음악과 댄스 퍼포먼스에 맞춰 신나게 물줄기를 뿜다 보면 피로도, 더위도,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아간다.

무주랜드상권 ‘야밤도주(道酒)’는 주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9월 4일과 5일 밤 무주극장거리(주계로 8길)에서 다양한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볼거리와 만날 수 있다.

특히 상권 해설사 지나와 함께하는 ‘천마 막걸리 만들기 체험’과 ‘무주랜드상권(반딧불시장~전후간 도로 상점) 이용 영수증 환급 행사’는 1석2조의 재미를 쟁길 수 있다.

Tip • 무도 이야기_무주군 학생·실버 태권도시범단 & 중국 등봉시 소림무술단 공연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가 자랑하는 학생·실버 태권도시범단(30명)이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서막을 연다. 9월 5일 개막식 식전 공연을 통해 품새와 격파, 태권댄스 등을 선보이며, 자매도시인 중국 등봉시 소림무술단도 9월 4일과 5일 등나무운동장 주무대에서 실력을 뽐낸다.

▶ 흥해라! 무주야

‘무주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전통 놀이’를 즐기자. ‘안성낙화놀이(9.4~5. 남대천 일원)’와 ‘부남뱃소배놀이 굿놀이(9.5. 한풍루)’, ‘무주농악보존회 공연(9.6. 한풍루)’,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포쇄·이안 행렬(9.12. 이안-무주읍 내 / 9.13. 포쇄-적상산 사고지)’이 진행될 예정이다.

흥에 취해 한바탕, 아름다움에 취해 또 한바탕 놀다 보면 ‘무주’가 어느새 마음에 안긴다. ‘안성낙화놀이’는 전통 불꽃놀이이며, ‘부남뱃소배놀이 굿놀이’는 나룻배가 낚아서 물을 때 하던 의식이다.

무주농악보존회의 진풀이와 상모 놀음도 볼거리. 포쇄·이안 행렬은 1634년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을 적상산사고로 포쇄·이안했던 역사를 재연하는 것이다.

▶ 볼어라! 열풍아

평일에는 지역 주민들의 해방 창구, 주말에는 방문객들의 신나는 놀이터로 사랑받아 온 EDM 파티장은 자리를 옮겨 무주예체문화관 주차장에 마련된다.

‘금·토 반디콘서트’도 기대! 9월 4일에는 미스터트롯3 진(眞) 출신 가수 김용빈, 최재명을 만날 수 있다. ‘나는 반딧불이’의 원곡 가수 중식이가 이 곡을 히트시키며 전국에 ‘무주에서 우주로, 반딧불이’ 열풍을 일으켰던 가수 황가람도 출연할 예정(9.5.)이다.

9월 11일에는 대중이 사랑하는 파워 보컬 에일리, 박혜원, 손순희, 하이키 등이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12일 폐막식에서는 ‘90년대부터 2천 년 대를 주름잡던 툸라, 김원준, 스페이스-A, Ref가 그 시절의 추억을 소환한다.

Tip • 경연 이야기_‘반딧불 창작 동요제 & 반딧불이 가요제’

‘반딧불 창작 동요제’는 전국의 어린이들이 경연을 넘어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자연과 환경을 노래하는 행사로 9월 11일 등나무운동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반딧불이 가요제(9. 6. 등나무운동장)’는 무주와 영동, 금산(3도·3군) 주민이 참여해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 즐겨라! 다같이

무주반딧불축제는 군민이 함께 만들고 같이 즐기는 축제다. 올해도 서금, 싹뜸, 귀반사 등 분야의 전문 봉사단을 포함해 650여 명의 자원봉사자(자원봉사센터 및 단체)들이 동참한다. 아침저녁으로 축제장 주변을 청소하고 교통정리, 주차 관리, 상설 부스 운영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싸고 맛있는 음식이 줄줄이 나오니 대기 줄은 기본이고 전일 만원 행진이 일상인 6개 읍면 천원 국수 식당.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이곳도 주민들이 주인이다. 이는 사람은 다 안다는 무주반딧불축제 명소 중의 명소. 축제 구경도 식후경이라니 어머니 손맛, 아버지 인심이 그림자면 이곳으로 고고!(gogo)

Tip • 낭만 이야기_반디와인 버스킹

9월 5일부터 11일까지 매일 밤 글로벌 태권존(태권브이랜드) 앞 와인바에서는 낭만 버스킹이 열린다. 무주특산물 머루·애플와인 한 잔에 퓨전국악, 전라악, 7080 버스킹 등 다양한 음악이 주는 감동을 만끽할 수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올해는 30회 축제를 맞아 전북,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환경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세계 축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축제답게 새롭고 풍성한 콘텐츠로 무주반딧불축제만의 차별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각인시키기 위해 매일, 매시간 정성을 쏟을 것입니다.”

〈박찬주 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위원장〉



“올해는 반딧불이 주제관 규모를 5배나 키워 22종의 곤충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낮에는 물벼락 페스티벌 등 온몸으로 즐기는 축제, 밤에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해 낙화놀이와 드론쇼 등 누이 즐거운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환경운동가 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들도 다수 준비가 돼 있으니,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언제든 오십시오.”

